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91호 [루게 제23043호] 주제99 (2010)년 4월 1일 (목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대혁신, 대비약의 기상이 세차게 나타내고있는 우리 조국강산에 뜻깊은 4월이 왔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이 다가올수록 천만군민의 마음은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에 젖어들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주의의 리념을 빛나게 구현해나갈 충정의 맹세로 끓어번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평생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번영과 부강발전을 위하여 온갖 로고를 다 바쳐오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이민주의의 숭고한 좌우명을 지니시고 한평생 인민들에게 계시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리한 태양,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인민을 하늘과 같이 여기시고 역사를 류태없는 애민헌신의 대장정을 이어나오셨다.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 가장 값있고 행복한 삶을 언젠가 주시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평생의 념원이였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두단계의 사회혁명,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며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어 우리 인민에게 영원한 행복의 터전을 마련해주시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적의지이다. 세계사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을 존엄높은 주체의 나라로 온 세상에 떨치시고 우리 인민의 자주적운명개척의 길을 활히 열어주시

##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이민주의의 뜻을 받들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의지는 천만년 길이길이 빛을 뿌릴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인민의 값없는 삶과 행복을 굳건히 담보하는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의 길을 일떠세우신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어 독창적인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의 길을 개척하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공로발견시키는 나날에 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시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부부하도록 불변 불휴의 사색과 로고를 바쳐오시였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당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시고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로부터 공부하고 병치레하는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당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주도록 하시며 한평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신것이 아버지수령님이시이다. 자주정치, 인민정치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며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위하여 새겨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헌신의 자욱자욱은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농부장들, 문화전당들과 인민의 유원지들에게도 아려오였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는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공부하며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발전하는 가장 우월하고 공고한 사회주의로 세상에 자랑떨치고있다. 아버지수령님

의 이민주의의 리념이 구현된 주체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영원한 생명이며 생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천리해안의 선경지명과 거창한 혁명실천을 위한 숭고한 사상과 위업을 토대로 튼튼히 다져놓으신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간고하고 시련에 찬 혁명의 길을 헤쳐오시면서 인민의 모든 리상을 실현해나갈 수 있는 만년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우리 당과 국가가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주의적 정치조직으로 강화발전될 수 있는것도, 인민군대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는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나고 빈민에서부터 주체적이며 현대적인 자립적민족경제가 마련될 수 있는것도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어 마련하신 만년토대가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련속에서도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며 강성대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놓을 수 있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최첨단을 돌파하며 강성대국으로 비약해나가는 조국의 막대한 현실을 통하여 세기와 세기를 이어 승승장구해나갈 수 있는 고귀한 유산을 물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우리 조국과 인민의 만년대계를

구상하시며 장구한 혁명의 길에서 마련하신 강력한 토대와 밑천이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불세출의 위인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을 위한 숭고한 사상과 위업을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당창건 65축을 맞는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일대 변혁을 이룩하고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 올려 열어제끼시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조국땅위에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이 사는 사회주의낙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대고조건설을 전두에서 령도하고계신다. 불면불휴의 현저도강행군을 이어가시며 강성대국건설의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제시하시고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활화산처럼 분출시키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는 인민생활대고조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로 되고 있다. 우리 조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무한한 정력으로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전두에서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이민주의의 뜻을 받들어 인민생활에서 결속을 위한 대고조건설대전을 전두에서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속에 동물들은 중앙동물원에 새로 보금자리를 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쿠웨이트동물원에서 보내어온 선물동물들은 만민이 경모하고 사랑하는 새끼를 낳고 자부심을 안고 강성대국의 패일을 확신하며 새로운 대고조의 총진군에서 격과 위엄을 창조하고있는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들은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들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을 일으켜 나갈것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념원을 실현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웅대한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펼쳐 놓아야 한다.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혁명과 건설을 수렁님식으로 전진시켜나아가야 한다. 인민생활향상의 길에서 쉼이없어 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혁명과 건설을 수렁님식으로 전진시켜나아가야 한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 선으로부터 사회주의물질기술적 토대, 사회주의해택과 인민적인 시책들이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귀중한 업적들을 철저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어주시고 주체의 한길로만 전진하여야 하며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모든 사업을 진행해나아가야 한다. 우리 식의 주체생태계를 완성한 선진국으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하여는 인민생활에서 결속을 위한 대고조건설대전을 전두에서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속에 동물들은 중앙동물원에 새로 보금자리를 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쿠웨이트동물원에서 보내어온 선물동물들은 만민이 경모하고 사랑하는 새끼를 낳고 자부심을 안고 강성대국의 패일을 확신하며 새로운 대고조의 총진군에서 격과 위엄을 창조하고있는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아가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우리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쫓아주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시다. 우리는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령도력, 숭고한 인민적품모를 지니시고 강성대국건설을 승리로 이 끌어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철물같이 뭉쳐 오늘의 대고조건설에서 수령님사용위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대고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는것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를 힘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 선으로부터 사회주의물질기술적 토대, 사회주의해택과 인민적인 시책들이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귀중한 업적들을 철저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어주시고 주체의 한길로만 전진하여야 하며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모든 사업을 진행해나아가야 한다. 우리 식의 주체생태계를 완성한 선진국으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하여는 인민생활에서 결속을 위한 대고조건설대전을 전두에서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속에 동물들은 중앙동물원에 새로 보금자리를 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쿠웨이트동물원에서 보내어온 선물동물들은 만민이 경모하고 사랑하는 새끼를 낳고 자부심을 안고 강성대국의 패일을 확신하며 새로운 대고조의 총진군에서 격과 위엄을 창조하고있는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당의 경영혁명방침, 농업혁명방침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인민소비품생산과 농업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나감으로써 대고조의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아가야 한다.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에서는 높은 생산성향상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를 힘있게 떠맡아나가야 한다. 최첨단과학기술을 비롯한 중요대형장비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강성대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떨쳐야 한다. 모든 부문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최첨단을 돌파해나감으로써 온 나라에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온 나라에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호모의 정이 더욱 뜨겁게 차넘치게 하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정치사업을 심화시켜야 한다. 당조직들은 언제나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화선식전선투쟁사업으로 대중의 열의를 끊임없이 앙양시켜 모든 전투장면에 혁명적대고조의 분위기가 팍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후방사업에 큰 힘을 넣어 대고조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의 전투적기개를 더욱 북돋아주어야 한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아버지수령님의 이민주의의 숭고한 뜻을 쫓고 우리 오늘 우리의 대고조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뜻깊은 올해를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일대 번영의 해로 빛내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쿠웨이트동물원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쿠웨이트 동물원에서 희귀한 동물들을 선물로 보내어왔다. 쿠웨이트동물원의 일꾼들은 21세기의 가장 걸출한 령도자로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호모의 정을 안고 아프리카 사자, 단봉악대, 갈기양, 사자들원숭이를 비롯하여 6종에 22마리의 동물들을 그에게 드리였다.

주제 97 (2008)년에 검은고니, 목도리앵무, 불수염검은얼굴원숭이, 꽃사슴, 넓은빨사슴, 꼬마염소, 가시도끼, 그리스멍거부기 등 9종에 60마리의 동물들을 보내어온데 이어 이번에도 또다시 그들이 선물로 드린 동물들마다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언제나 기쁨과 행복 속에 계시기를 바라는 뜨거운 마음이 아려왔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휴식조건을 마련해주시려고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속에 동물들은 중앙동물원에 새로 보금자리를 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쿠웨이트동물원에서 보내어온 선물동물들은 만민이 경모하고 사랑하는 새끼를 낳고 자부심을 안고 강성대국의 패일을 확신하며 새로운 대고조의 총진군에서 격과 위엄을 창조하고있는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신 소식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신 소식을 3월 30일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 3월 29일 조선주재 중국신임대사 류홍제를 접견하시고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사와 따뜻한 대화를 하시였다. 중국의 《해방군보》와 《중

국정부망》, 《중국망》, 《신민망》 등 60여개의 인터넷 트루페지들, 타이완 《방포크 포스트》, 일본의 교도통신 등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선군시대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진행

【평양 3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 선군시대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가 3월 31일 인민문화공원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최첨단과학기술의 열풍을 일으키고 최단기간내에 우리 나라를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으로 일떠세우는데 이바지하려는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정으로 끓어번지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수, 당, 행정경제기관 책임인들, 도, 시, 군 기관, 기업소, 농장일꾼들, 모범적인 과학자, 기술자들 그리고 활렬충 재일본조선인파학기술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대표단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제 52 (1963)년 3월 22일 과학자,

기술자대회에서 하신 연설 《기술혁명수행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임무》를 숙성목적으로 청취하였다. 대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오수 용내각부총리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올해 해동사실과 당창건 65축을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최를 받들고 열성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며 최첨단과학기술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시기에 선군시대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를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뜻을 빛내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과학기술중시론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전략적선언으로 제시하시였으며

과학연구기관과 대학, 공장, 기업소들을 찾아다니며 과학기술자들을 풀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온 나라에 과학기술중시기풍이 차넘치게 하시였을뿐 아니라 강력한 과학기술력향상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CNC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게 되었으며 정보산업시대에 맞게 최첨단을 돌파하여 모든것의 패권을 쥐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국가과학원 합동분원을 비롯한 여러

과학연구기관과 대학, 공장, 기업소들을 찾아다니며 과학기술자들을 풀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온 나라에 과학기술중시기풍이 차넘치게 하시였을뿐 아니라 강력한 과학기술력향상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CNC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게 되었으며 정보산업시대에 맞게 최첨단을 돌파하여 모든것의 패권을 쥐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3번으로 계속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알리 벤 봉고 옹딤바 가봉공화국 대통령 회담

【리브르빌 3월 30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 가봉공화국 대통령 알리 벤 봉고 옹딤바가 회담이 3월 30일 대통령부에서 진행되였다.

김영남 동지, 전병호동지, 최태복 동지와 오수용, 로두철 내각부총리, 당, 행정경제기관 책임인들, 도, 시, 군 기관, 기업소, 농장일꾼들, 모범적인 과학자, 기술자들 그리고 활렬충 재일본조선인파학기술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대표단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제 52 (1963)년 3월 22일 과학자,

기술자대회에서 하신 연설 《기술혁명수행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임무》를 숙성목적으로 청취하였다. 대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오수 용내각부총리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올해 해동사실과 당창건 65축을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최를 받들고 열성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며 최첨단과학기술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시기에 선군시대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를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뜻을 빛내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과학기술중시론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전략적선언으로 제시하시였으며

과학연구기관과 대학, 공장, 기업소들을 찾아다니며 과학기술자들을 풀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온 나라에 과학기술중시기풍이 차넘치게 하시였을뿐 아니라 강력한 과학기술력향상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CNC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게 되었으며 정보산업시대에 맞게 최첨단을 돌파하여 모든것의 패권을 쥐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국가과학원 합동분원을 비롯한 여러

과학연구기관과 대학, 공장, 기업소들을 찾아다니며 과학기술자들을 풀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온 나라에 과학기술중시기풍이 차넘치게 하시였을뿐 아니라 강력한 과학기술력향상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CNC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게 되었으며 정보산업시대에 맞게 최첨단을 돌파하여 모든것의 패권을 쥐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3번으로 계속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가봉공화국사이의 협정과 의정서 조인

【리브르빌 3월 30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사이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과 가봉공화국 외무, 국제협조 및 프랑스어사용국담당장관사이의 협조에 관한 의정서가 3월 30일 리브르빌에서 조인되였다. 조인식에는 우리측에서 조

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 가봉공화국 대통령 알리 벤 봉고 옹딤바가 회담이 3월 30일 대통령부에서 진행되였다. 김영남 동지, 전병호동지, 최태복 동지와 오수용, 로두철 내각부총리, 당, 행정경제기관 책임인들, 도, 시, 군 기관, 기업소, 농장일꾼들, 모범적인 과학자, 기술자들 그리고 활렬충 재일본조선인파학기술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대표단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제 52 (1963)년 3월 22일 과학자,

기술자대회에서 하신 연설 《기술혁명수행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임무》를 숙성목적으로 청취하였다. 대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오수 용내각부총리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올해 해동사실과 당창건 65축을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최를 받들고 열성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며 최첨단과학기술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시기에 선군시대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를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뜻을 빛내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과학기술중시론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전략적선언으로 제시하시였으며

과학연구기관과 대학, 공장, 기업소들을 찾아다니며 과학기술자들을 풀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온 나라에 과학기술중시기풍이 차넘치게 하시였을뿐 아니라 강력한 과학기술력향상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CNC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게 되었으며 정보산업시대에 맞게 최첨단을 돌파하여 모든것의 패권을 쥐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국가과학원 합동분원을 비롯한 여러

과학연구기관과 대학, 공장, 기업소들을 찾아다니며 과학기술자들을 풀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온 나라에 과학기술중시기풍이 차넘치게 하시였을뿐 아니라 강력한 과학기술력향상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CNC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게 되었으며 정보산업시대에 맞게 최첨단을 돌파하여 모든것의 패권을 쥐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3번으로 계속

【리브르빌 3월 31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 가봉공화국 대통령 알리 벤 봉고 옹딤바가 회담이 3월 30일 대통령부에서 진행되였다. 김영남 동지, 전병호동지, 최태복 동지와 오수용, 로두철 내각부총리, 당, 행정경제기관 책임인들, 도, 시, 군 기관, 기업소, 농장일꾼들, 모범적인 과학자, 기술자들 그리고 활렬충 재일본조선인파학기술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대표단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제 52 (1963)년 3월 22일 과학자,



【리브르빌 3월 31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 가봉공화국 대통령 알리 벤 봉고 옹딤바가 회담이 3월 30일 대통령부에서 진행되였다. 김영남 동지, 전병호동지, 최태복 동지와 오수용, 로두철 내각부총리, 당, 행정경제기관 책임인들, 도, 시, 군 기관, 기업소, 농장일꾼들, 모범적인 과학자, 기술자들 그리고 활렬충 재일본조선인파학기술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대표단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제 52 (1963)년 3월 22일 과학자,

【리브르빌 3월 31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 가봉공화국 대통령 알리 벤 봉고 옹딤바가 회담이 3월 30일 대통령부에서 진행되였다. 김영남 동지, 전병호동지, 최태복 동지와 오수용, 로두철 내각부총리, 당, 행정경제기관 책임인들, 도, 시, 군 기관, 기업소, 농장일꾼들, 모범적인 과학자, 기술자들 그리고 활렬충 재일본조선인파학기술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대표단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제 52 (1963)년 3월 22일 과학자,

【리브르빌 3월 31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 가봉공화국 대통령 알리 벤 봉고 옹딤바가 회담이 3월 30일 대통령부에서 진행되였다. 김영남 동지, 전병호동지, 최태복 동지와 오수용, 로두철 내각부총리, 당, 행정경제기관 책임인들, 도, 시, 군 기관, 기업소, 농장일꾼들, 모범적인 과학자, 기술자들 그리고 활렬충 재일본조선인파학기술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대표단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제 52 (1963)년 3월 22일 과학자,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 민족의 대통령, 대경사의 4월

아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리상이  
꽃피는 내 조국땅에 뚫겼는 4월  
이 왔다.

하늘도 경사로운 4월을 축하하  
듯 류달리 청청하게 열리고 대지엔  
봄기운이 약동한다.

금수강산의 만가지 경치와 아름  
다움이 다 모여 한쪽의 훌륭한 명화  
를 방불케 하는 유서깊은 만경대.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영원한 마음의 교향인 혁명의 성지  
로 사람들의 물결이 끝없이 흐르고  
있다.

손에손에 아름다운 꽃송이들을  
들고 교향집트락으로 들어서는 사  
람들의 숨얼한 발걸음과 빛나는 눈  
동자, 얼굴에 넘쳐나는 뜨거운 경  
모의 정...

만경대만이 아닌 이 땅 그 어디  
서나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다함없  
는 흠모와 그리움의 정이 대하마냥  
세차게 끓어치호르고있다.

봄결에도 그리워찾는 우리  
수령님에 대한 온 나라 인민의 절  
절한 마음을 담아 오늘로 당포에  
위대한 태양의 모습을 정중히  
모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  
아래 통성변명하는 내 조국의 찬란  
한 미래를 축복하시며 온 누리  
가 밝아지도록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얼마나 친근하고 자애로우신 인  
민의 아버지이신가. 누구나 스스럼  
없이 달려가 안고있고 가슴속 깊은  
사연까지도 죄다 아뢰이고싶은  
우리 수령님.

우리를 수록 그이이사야말로 인류  
가 낳은 불세출의 위인이시라는 찬  
란의 목소리가 절로 울려나오고 오  
늘도 봄날의 햇빛같은 환한 미소로  
우리를 고무해주시며 승리로 떠  
밀어주시는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  
시라는 숨얼한 감정이 가슴벅차게  
분발처오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수령님은 우리 인민의  
수천년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령도자이시  
며 온 세계가 공인하는 인류의  
대양이십니다.”

조선의 근대사에서 민족수난의  
비극이 가장 암담하게 중첩되던  
1910년대의 날들이 어찌런듯  
눈앞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는 강도 일제의 식민지  
로 완전히 굴러떨어지고 민족의 운  
명은 칠성판에 걸렸다. 유구한 력  
사와 풍요한 자연부원, 수려한 산  
천경관을 자랑하던 강토는 일본  
군화하에 대로치워져버려 버렸다.  
조선은 말그대로 일제의 쇠사  
슬에 찰창 감겨어 사람 못살 생지  
육으로 되었다.

우리 인민은 국권을 강탈당한  
수난의 날들이 어찌런듯 눈앞에  
이르렀다.



만민의 래양으로 영원히 빛나는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는 참관자들  
—만경대혁명사적관에서—  
본사기자 리원국 적음

술과 분노로 치를 떨었다. 그  
목적에 해와 달도 빛을 잃은듯  
었다. 울분은 반항을 불려 의병들  
의 항전을 비롯하여 각종 투쟁을  
놓았지만 단결의 중심과 승리의  
전력이 없는 탓에 여지없이 짓밟히  
어 실패의 쓰라린 피눈물이 온 강  
산을 적시었다. 이 암흑의 세상에  
광명을 줄 천출위원을 부르는 우  
리 거리의 목소리는 얼마나 절절  
하였던가. 그 부름소리는 흐르는  
물에도, 바람결에도 어려웠을듯  
었다.

이 일이고 주체의 새시대가 펼쳐  
지게 되었던것이다.

너무도 수수하고 너무도 소박한  
만경대초가지, 바로 여기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할머님께서  
들리시는 물레소리를 들으시며 작  
취받고 억압받는 이 나라 인민들의  
고달픈 한숨소리를 들으시었고 피  
죽으로 끼니를 에우시는 가난속에  
서 헐벗고 굶주리는 인민의 실음을  
가슴아프게 느끼시었다. 유년시절  
부터 남달리 비범하시고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뛰어난 천품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부모님으로부  
리 애국주의 교양과 혁명적영향을  
받으시면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  
을 찾는 일에 일생을 다 바칠 굳은  
결심을 다지시었다. 력사의 그 나  
날들과 더불어 우리 수령님께서 나  
라의 민족의 실음과 고통을 뼈에  
사투리치 느끼시며, 빼앗긴 조국을  
찾고야말 굳은 맹세 다지시며 결코  
절친 혁명의 협조한 길은 그 일  
마였던가.

10대의 어린 나이에 벌써 도  
란에 빠진 인민을 건지시고 인류의  
새시대를 펼쳐실 운지를 품으시고  
어둠던 조선에 주체로 빛나는 새물  
고 위대한 혁명의 불길을 지펴올리  
신 우리 수령님.

“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다! 무  
장에는 무장으로!” 라는 피끓이  
는 애국의 호소로 백두산야에 반  
서 혈맹의 총검이 번뜩이게 하시  
며 20대초부터 세계적명장으로  
이름을 떨치시고 30대초에는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항일의 전설적영웅  
김일성동지.

항일혁명투쟁에서 이룩하신 고귀  
한 혁명전공과 업적을 의거하여 해  
방후 지체없이 당장건국 국가건설  
의업무를 실천하시고 우리 혁명무  
력을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우리 수령님의 령도의 위대성을 무  
엇으로 다 칭송할수 있오라.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  
의 《강대국》의 실화를 여지없

이 깨뜨려버리고 우리 민족의 존  
엄과 영웅적기상을 온 세상에 힘  
있게 과시한 조국해방전쟁의 위  
대한 승리.

그것은 그 어떤 피성벽력에도 고  
떡하지 않는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당력을 지니신 우리 수령님의  
천재적재지와 비범한 령도의 고귀  
한 결실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두단계의  
사회혁명과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시어  
이 땅위에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  
인자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  
주의제도를 수립하시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  
셨다. 력사의 온갖 도전과 난관의  
역풍을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일풍  
으로 뒤흔쳐놓으며 우리 식 사회주  
의의 위용을 온 세상에 자랑높이  
펼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우리 인민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한다.

기존공식과 기성경험에 구애되지  
없이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  
마다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방침과  
로선을 제시하시고 단 한번의 로선  
상차나 탈선도 없이 우리 혁명을  
오직 주체의 궤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우리 수령님의 영광찬  
란한 혁명력사!

여기에 그이의 끝없는 사색과  
실천, 그이께서 세우시는 모든 로  
선과 정책의 초석으로 되는 하나의  
진리가 빛날치고있다.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며 백민 승리하  
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  
민 배반하는 진리를 삶과 투쟁의  
과우명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 수령님의 평생생의 력사와  
체험이 함축되어있는 귀중한 철학  
적명언이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그이께서는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  
가서 혁명투쟁을 벌리시는 실천  
투쟁과정에 소박하고 평범한 인민

고비, 시련의 고비를  
수없이 넘으시어 조국  
해방을 안아오신  
아버이수령님께서 80고령의 그 나  
날에도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  
랑의 감정을 안시고 정력에 넘치신  
음성으로 《사향가》를 부르시었다.

진정 《사향가》는 고향에 대한  
추억의 노래인 동시에 조국과 인민  
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한생을 관통하고  
있는 혁명의 노래, 영원한 투쟁의  
노래이다.

바로 그래서 《사향가》의 유정  
한 선율속에 만경대고향집을 돌아  
보며 사람들은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생애를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며 경애하는 장군님  
따라 수령님께서 그토록 념원하신  
사회주의강대국을 거두어 일떠세  
울 의지로 가슴 불태우는 것이다.

조국과 혁명대에 쌓아올리신  
아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더  
불어, 주체의 태양이 찬란히 솟아  
오른 혁명의 성지와 함께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는 끝없이  
울려져갈것이다.

본사기자 백영 III  
다운 만경대의 봄...이라는 《사  
향가》의 구절과 더불어 이라도 사  
랑한 대동강의 봄.

그것은 우리 수령님께서 열렬한  
조국애, 민족애로 안아오신 우리  
조국의 귀중한 모든것을 온 누리에  
찬란히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해방속에 꽃피는  
선군조선의 승리의 봄이다.

아버이수령님에 대한 고결한 총  
정으로 태양결의 속모도 바로 이  
 력사의 강변에서 터쳐올리신 우리  
장군님이 아니신가.

날로 소리치며 변명하는 선군조  
신의 눈부신 화폭들을 한가득 담  
아시고 기쁨에 거울못 물결을 굽  
넘어 흐르는 정다운 젓줄기 대동  
강이여!

너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온 세상에 불태우시며 항일의 혈전  
과 확신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  
고한 리상을 꽃피우시며 강대국의  
봄을 가꾸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기에 대동강  
은 영원히 행복의 봄노래를 만들고  
출렁이며 끓어치호를것을 안고  
정 순 화

뜻깊은 태양절을 맞  
으며 만경대고향집을  
찾는 사람들모두가 혁  
명의 성지에 울려퍼지는 《사향가》  
의 유정한 선율에 이끌려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평생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  
여, 조국의 번영과 부강발전을  
위하여 온갖 로고를 다 바쳐오시  
였습니다.”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과 더불어 지을  
수 없는 뜨거운 추억들을 불러일으  
키는 잊을수 없는 노래 《사향가》!  
장구하고도 간고한 혁명의 길을  
헤쳐오신 아버지수령님의 심중에서  
숭고한 조국애를 뜨겁게 불려일으  
키며 투쟁과 위훈으로 파카히 추종  
해오라 바로 《사향가》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  
이 담겨진 말씀은 되새기며 지휘  
판들은 백두산에서 개척된 주체  
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  
시키려는 위대한 선군명장의 철  
철의 심념을 다시금 심장에 새  
겨안았다.

김 철 혁  
아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사랑도 산천도 뜨겁게  
설레이는 뜻깊은 4월이다.

대하마냥 끓어치는 사람들의 물  
결에 이끌려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찾았던 우리는 숨얼한 격  
정을 안고 만경봉으로 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랑스러운 모든  
것은 그 어느것이냐 다 수령님의  
존귀하신 성함과 잇닿아있습  
니다.”

봄기운이 짙게 어린 대동강이 한  
쪽의 그림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자주로 존엄높은 선군조선의 역  
쟁 기상인양 쉬임없이 떠오르는 주  
체사상당의 분화, 아득히 펼쳐진  
변명하는 평양의 일가...

약동하는 내 조국의 장한 모습을  
담아시고 유유히 끓어치는 아름다  
운 대동강.

지난날 눈물과 설움만이 실리던  
저 강물위에 과연 언제부터 민족적  
주와 존엄으로 빛나는 성스러운 력  
사가 비기었던가.

우리 수령님 생전에 이 노래를 열  
거나 사랑하고 즐겨부르시었다.

푸른 산 굽이들이 기뻐하는  
감동아 흐르는 대동강을 바라보니  
라니 정녕 대동강이 아마도 우리  
혁명의 만년사가 어린 력사의 중  
견자라는 생각이 우리의 가슴을  
친다.

대동강이여 다 풀리고 나무잎  
이 푸르러도 돌아오지 못하는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대동강이여!



#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재대국으로 빛내이자! (공동주호에서)

## 비약의 숨결 안고 약동하는 흥남산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에서

새 학년도의 첫 아침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의 일꾼들과 교직원, 학생들의 가슴 마다에는 뜨거운 심장의 목소리가 울리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 새 학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장군님 사랑속에 날로 번성하고 흥하는 김일성종합대학의 더 밝고 창창한 미래를 약속하며 흥남산에 개학의 종소리 높이 울립니다.)

해운는 흥남산에 높이 울리는 개학의 종소리.

그것은 비단 새 학년도의 시작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실천행동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불멸의 령도자육을 새겨신 50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항구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에서는 뜻깊은 올해의 새 학년도를 불러는 충실성과 뚜렷한 교육실천성과로 맞이할 목표를 내세우고 즐거운 투쟁을 벌여왔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김일성종합대학의 빛나는 전통이다.

경제학부에서는 이번 새 학년도를 개학을 위한 준비사업의 중심을 학생들을 선군사상의 열렬한 옹호자, 철저한 관찰자들로 더욱 믿음직하게 준비시키는데 두고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학생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지닌 혁명인재로 키우는데서 그들 위한 교양사업은 잘 꾸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잘 알았다는 학부일꾼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김일성종합대학 학부시령도 엄격교양실을 잘 꾸려놓는데 맞게 그 운영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해마다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그들이 연혁소개실을 비롯한 위대성교양장소들을 참관하는 것으로 대학시절의 첫 자육을 내걸도록 하고있는 사실만 놓고보아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심화하고, 광활화해나가고있는 집단의 교양실도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잘 알 수 있다.

학부에서는 이렇게 교양사업

을 통한 학생교양사업에 힘을 넣는 과정에서 그들이 김일성종합대학시절은 물론 혁명과 건설을 영도해오시는 전기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살아오신 불멸의 사상리론업적과 영도업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학습과 생활에 걸쳐 구구히나도록 하였다.

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것과 함께 학부에서는 올해 새 학년도 교수 준비를 다그치면서 교육방법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개선하는데 힘을 넣었다.

앞에 이미처럼 정보산업시대에 맞게 교육환경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학부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교육방법을 더욱 현대화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를 위한 투쟁을 즐기차게 벌여왔다.

학부에서는 자체의 프로그램 개발방향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주제를 벌린 결과 경제학 교육에 대한 전국적인 표준화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교육지원프로그램을 훌륭히 완성할 수 있었으며 교육실현에 적극 구현할 수 있다.

현재 학부에서는 교실들에

서 다매체전집들에 의한 교육이 정상화되고있으며 그 생활력은 날이 갈수록 높이 발휘되고있다. 전자강의안, 자체 학습실, 실력판정실, 참고자료실 등 되어있는 교육지원프로그램은 교실들에 실시간 봉사되고있다. 여기에는 수천건의 참고자료들이 수록되어있는 것으로 하여 학생들은 강의시간에는 물론 강의 학습시간에도 전공과목을 포함한 경제학분야의 폭넓은 지식을 소유하고있다.

학부에서는 경제학교육에 대한 전국적표준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맞게 본격적으로 교육발전준비 사업을 적극 개척하는 사업도 힘있게 추진시켜왔다.

최첨단들과의 기상이 그 어느 때보다 세차게 내세지는 오늘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자각한 학부안의 모든 강사진들은 너도나도 새 과목개척에 떨쳐나섰으며 결과 올해 새 학년도를 위한 교육실현에서 은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최첨단들과의 기상은 오늘 경제학부를 포함한 김일성종합대학의 모든 학부, 강좌들에서 날이 갈수록 경쟁적으로 세차게 내세지고있다.

해를 두고 거듭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높은 교육과 학생과도 보답하려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의 불타는 열정과 신념이 비껴 있어 새 학년도를 맞이할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있다. 교육방법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는 새 학년도를 앞두고 대학적인 보여주기사업을 통하여 널리 보였었다.

새 학년도를 앞두고 학부에서는 최첨단수준의 새 과목을 적극 개척하는 사업도 힘있게 추진시켜왔다.

최첨단들과의 기상이 그 어느 때보다 세차게 내세지는 오늘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자각한 학부안의 모든 강사진들은 너도나도 새 과목개척에 떨쳐나섰으며 결과 올해 새 학년도를 위한 교육실현에서 은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최첨단들과의 기상은 오늘 경제학부를 포함한 김일성종합대학의 모든 학부, 강좌들에서 날이 갈수록 경쟁적으로 세차게 내세지고있다.

해를 두고 거듭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높은 교육과 학생과도 보답하려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의 불타는 열정과 신념이 비껴 있어 새 학년도를 맞이할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있다. 교육방법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는 새 학년도를 앞두고 대학적인 보여주기사업을 통하여 널리 보였었다.

새 학년도를 앞두고 학부에서는 최첨단수준의 새 과목을 적극 개척하는 사업도 힘있게 추진시켜왔다.

최첨단들과의 기상이 그 어느 때보다 세차게 내세지는 오늘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 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뜻깊은 올해 새 학년도가 시작되었다.

교육부문앞에는 사회주의 교육체제를 높이 받들고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최첨단을 돌파하여 교육강국, 인재대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서야 할 무거운 부담과 과업이 내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 교육사업의 실태는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 한해동안에 만 김일성종합대학과 김기충희령제1중학교, 청진광산속속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들에 불멸의 령도자육을 남기시면서 온 나라에 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주시었다.

교육부문 일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시하신 교육혁명의 불길을 올릴 때 새 학년도 교육사업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 모든 교원, 연구자들은 성장과 2. 8비율론의 원칙을 견지하고 투쟁정신과 일본새를 따라배워 교육부문에서 최첨단들과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교육내용개편과 교육방법혁신, 교육조건현대화, 정보화실현에서 최첨단을 돌파하는 것은 올해 교육목표와결합해 나설 중요한 임무이다.

오늘의 최첨단들과는 모방이 아니라 우리 식의 창조를 요구한다.

교육부문 일꾼들과 교원, 연구자들은 하나를 창조해도 우리 식으로 남보다 월등하게 만들어 세상에 내놓을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다는 담백과 배짱, 든든한 자신심을 가지고 최첨단들과의 과감히 밀려나아가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여있는 교육관들이 교육혁명의 앞장에 서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도도를 받은 교육기관에서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국의 본보기를 창조하여야 한다.

모든 단위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신 현지도단위들의 수준에 올라서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장군님께서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 높은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

정지상교육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면서 과학기술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현대화하고 교육과목을 발전시켜야 한다.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교원들의 자질이 교육의 질이고 학생들의 실력이다.

교원들은 직업적인 혁명가로서의 정치사상적목표를 갖추고 교육내용에 정통하는 것과 함께 정보산업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자질, 교수자질을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새로운 학과목들을 개척하고 실험실습설비들의 현대화, 정보화를 최첨단수준에서 실현하며 강대국건설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달성하여야 한다.

교육사업에 대한 전담적, 전국적, 전사회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

모든 도, 시, 군 (구역) 들에서는 《모범교육관》 창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학교교육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온 사회에 교육을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후진단계들이 지원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여 우리 당의 교육혁명방향을 철저히 관철되도록 적극 매입하여야 한다.

뜻깊은 올해 새 학년도가 시작되었다.

교육부문앞에는 사회주의 교육체제를 높이 받들고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최첨단을 돌파하여 교육강국, 인재대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서야 할 무거운 부담과 과업이 내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 교육사업의 실태는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 한해동안에 만 김일성종합대학과 김기충희령제1중학교, 청진광산속속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들에 불멸의 령도자육을 남기시면서 온 나라에 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주시었다.

교육부문 일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시하신 교육혁명의 불길을 올릴 때 새 학년도 교육사업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 모든 교원, 연구자들은 성장과 2. 8비율론의 원칙을 견지하고 투쟁정신과 일본새를 따라배워 교육부문에서 최첨단들과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교육내용개편과 교육방법혁신, 교육조건현대화, 정보화실현에서 최첨단을 돌파하는 것은 올해 교육목표와결합해 나설 중요한 임무이다.

오늘의 최첨단들과는 모방이 아니라 우리 식의 창조를 요구한다.

교육부문 일꾼들과 교원, 연구자들은 하나를 창조해도 우리 식으로 남보다 월등하게 만들어 세상에 내놓을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다는 담백과 배짱, 든든한 자신심을 가지고 최첨단들과의 과감히 밀려나아가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여있는 교육관들이 교육혁명의 앞장에 서야 한다.

### 해주청정보기술전문학교에서

조선로동당청년 65돐에 즈음하여 발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호를 피로하는 심장마대에 새겨안은 해주청정보기술전문학교의 일꾼들과 교직원들이 교육의 질을 최첨단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육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교양실습장소, 부교장 리의철동무들을 비롯한 학교일꾼들은 학교교육에서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대단한 목표를 세우고 그 실행을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우선 교육내용을 보다 풍부히 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교육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과학기술성과자료를 교수안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이 학과들에서 경쟁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이 사업에서는 정보통신학과, 컴퓨터학과, 전자장기학과들이 모범을 보이고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방법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다매체전집들에 의한 교수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한 물질적기술적조치를 원만히 갖추도록 하는 한편 컴퓨터를 리용한 교수에서의 효과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가치있는 방법들을 탐구도입하도록 하고있다.

### 4 5분수업과 일꾼들의 교수참관

청진시 수남구역 2중영예의 붉은기 청남중학교는 시적으로 전진학생들의 실력이 높고있으므로 잘 알려져있다.

지난 기간 알아맞추기경연을 비롯한 중앙 및 도급 각 과목경연들 그리고 해마다 진행되는 대학입시시험에서 이 학교 학생들은 자기들이 정사시킨 단안 실력과 재능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그렇게 5점만점을 맞을 수 있는가고 물을 때면 학교 학생들은 대답한다.

《시험장에 앉아 제시된 문제를 한장 들여다보느라 머리를 아지려도 교과서나 글자 하나를 신경쓰지 않아요. 수업시간마다 우리들이 모를 것이 있을때까 차근차근 리치를 따져가며 열정적으로 설명해주던 선생님의 그 다정한 얼굴표정이 아니라 손에 땀이 땀이 흐를 정도로 문제의 심미가 척척 풀리곤 했습니디.》

얼마전 청진시 수남구역 청남중학교에 대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학교교원들과 학생들의 말이 무뎠다는 진정임을 잘 알 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강의는 하나의 예술입니다. 풍부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교수방법이 좋지 못하면 교원이 학생들에게 강의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제정해준 법과도 같은 4 5분수업만 방법론있게 잘하여도 학생들에게 단시간 동안에 많은 지식을 습득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학교교

### 수남구역 청남중학교에서

교원들이 교육방법연구에서 찾아낸 모범이다.

청남중학교를 자주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말하는 것처럼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에 학교교장이나 부교장을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되고있다.

학교들에서 첫 수업이 진행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학교 일꾼들의 교수참관시간인 것이다.

그만큼 교장 참관, 부교장 학습동무들은 하루이틀도 아닌 십여년동안 자기 사업의 첫 걸음을 교수참관으로 정하여놓고 그것을 하루도 번지지 않았다. 교장은 사외과목을 위주로 교수참관을 하고 부교장은 자연과목을 위주로 교수참관을 하는 식으로 분담을 명백히 한데 기초하여 각자가 자기자신에 대한 요구성을 높여왔다.

이렇게 학교일꾼들이 교수참관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교원들의 교수능력을 검토하고 적합한 점들을 찾아내어 그 극복방도를 가르쳐주고있는 것으로 하여 교원들 모두가 이들의 교수참관을 좋아하고 또 즐기기 되고있다.

학교일꾼들부터 4 5분수업을 중시하는 밑작에서 손님이 아니라 엄격한 시험관, 판정선수가 되어 방법론을 가지고 교수참관을 진행하니 교원들의 4 5분수업의 하루가 다르게 높아갔다. 이 학교의 많은 교원들이 《10월 8일모범교수자》로 되고있는 것은 바로 학교일꾼들의 꾸준하고도 변함없는 이신작적이 안배되고있는데 그 비결의 하나가 되었다.

일꾼들부터가 교원들의 《지

### 모범적인 단위들에 《선군봉화상》 쟁취를 위한 사회주의경쟁 공동순회우승기 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상과 영도업적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근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발휘하여 주제 98 (2009)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다음의 공장, 기업소들에 《선군봉화상》 쟁취를 위한 사회주의경쟁 공동순회우승기를 수여하기로 하였다.

청진시 수남구역 청남중학교, 선군건설합기기업소 (모체), 보산제철소, 제명평산, 은물평산, 문전강철공장, 수동발전소, 서두수발전소, 허천강발전소, 강계청년발전소, 북방화력발전련합기업소, 부전강발전소, 대동강발전소, 선산청년발전소, 부평발전소, 삼수발전소, 2. 8직통청년관람, 청성청년관람, 신장청년관람, 흑룡관람, 평대관람, 동창청년관람, 신리관람, 남덕관람, 개천관람, 삼신관람, 강동관람, 덕성관람, 인로관람, 남양관람, 통산관람, 명학관람, 풍곡관람, 원리관람, 화안관람, 개천관람, 개천관람, 통성메이링공장, 정주기관차대, 평안청년전기기관차대, 함흥역, 신의주청년과학화대, 신성현역,

### 배움의 나라를 활짝 펴게 철산군 철산소학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학생들이 가지고있는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체계적으로 키워내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철산소학교에서 학생들을 지극히 세차게 세차게 세차게 키워내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 있다.

학과학습에서나 체육경기에서 군적으로 1등.

지난해 도에서 진행된 축구경기에서도 1등.

이것은 최근에 학교가 거둔 자랑찬 성과의 일부이다.

사업에서의 성과를 기대하려 면 그 때 맞는 방법론이 있어야 한다.

나라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2학년부터 학생들을 예능소

### 합쳐가고있다

교수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본사기자 장정일씨를 학교에서

### 제 2차 4월의 봄 인민예술 축전 선전화들이 나왔다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선전화들이 출품되었다.

선전화들은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시이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천천만에 높이 받들어 모시며 민족최대의 명칭인 태양절을 위인칭송으로 성대히 기념하려는 천만 국민의 지향과 념원을 잘 보여주고있다.

선전화들에는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이라는 글발이 띄여져있으며 축전기간이 밝혀져있다.

주제조선의 밤하늘가에 떠저오르는 축로와 불보라를 배경으로 축전마크가 형성되어 있는 선전화에는

### 4월 중 지자기 현상

4월에 지구물리적으로 다음과 같다. 15일, 17일, 24일, 따라 건강에 불리한 날들은 1일, 4일, 6일, 12일, 28일, 30일. 본사기자

###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 축전 선전화들이 나왔다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선전화들이 출품되었다.

선전화들은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시이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천천만에 높이 받들어 모시며 민족최대의 명칭인 태양절을 위인칭송으로 성대히 기념하려는 천만 국민의 지향과 념원을 잘 보여주고있다.

선전화들에는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이라는 글발이 띄여져있으며 축전기간이 밝혀져있다.

주제조선의 밤하늘가에 떠저오르는 축로와 불보라를 배경으로 축전마크가 형성되어 있는 선전화에는

### 모범적인 단위들에 《선군봉화상》 쟁취를 위한 사회주의경쟁 공동순회우승기 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상과 영도업적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근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발휘하여 주제 98 (2009)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다음의 공장, 기업소들에 《선군봉화상》 쟁취를 위한 사회주의경쟁 공동순회우승기를 수여하기로 하였다.

청진시 수남구역 청남중학교, 선군건설합기기업소 (모체), 보산제철소, 제명평산, 은물평산, 문전강철공장, 수동발전소, 서두수발전소, 허천강발전소, 강계청년발전소, 북방화력발전련합기업소, 부전강발전소, 대동강발전소, 선산청년발전소, 부평발전소, 삼수발전소, 2. 8직통청년관람, 청성청년관람, 신장청년관람, 흑룡관람, 평대관람, 동창청년관람, 신리관람, 남덕관람, 개천관람, 삼신관람, 강동관람, 덕성관람, 인로관람, 남양관람, 통산관람, 명학관람, 풍곡관람, 원리관람, 화안관람, 개천관람, 개천관람, 통성메이링공장, 정주기관차대, 평안청년전기기관차대, 함흥역, 신의주청년과학화대, 신성현역,

### 배움의 나라를 활짝 펴게 철산군 철산소학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학생들이 가지고있는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체계적으로 키워내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철산소학교에서 학생들을 지극히 세차게 세차게 세차게 키워내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 있다.

학과학습에서나 체육경기에서 군적으로 1등.

지난해 도에서 진행된 축구경기에서도 1등.

이것은 최근에 학교가 거둔 자랑찬 성과의 일부이다.

사업에서의 성과를 기대하려 면 그 때 맞는 방법론이 있어야 한다.

나라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2학년부터 학생들을 예능소

### 합쳐가고있다

교수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본사기자 장정일씨를 학교에서

### 제 2차 4월의 봄 인민예술 축전 선전화들이 나왔다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선전화들이 출품되었다.

선전화들은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시이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천천만에 높이 받들어 모시며 민족최대의 명칭인 태양절을 위인칭송으로 성대히 기념하려는 천만 국민의 지향과 념원을 잘 보여주고있다.

선전화들에는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이라는 글발이 띄여져있으며 축전기간이 밝혀져있다.

주제조선의 밤하늘가에 떠저오르는 축로와 불보라를 배경으로 축전마크가 형성되어 있는 선전화에는

### 4월 중 지자기 현상

4월에 지구물리적으로 다음과 같다. 15일, 17일, 24일, 따라 건강에 불리한 날들은 1일, 4일, 6일, 12일, 28일, 30일. 본사기자

#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 축전 선전화들이 나왔다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선전화들이 출품되었다.

선전화들은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시이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천천만에 높이 받들어 모시며 민족최대의 명칭인 태양절을 위인칭송으로 성대히 기념하려는 천만 국민의 지향과 념원을 잘 보여주고있다.

선전화들에는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이라는 글발이 띄여져있으며 축전기간이 밝혀져있다.

주제조선의 밤하늘가에 떠저오르는 축로와 불보라를 배경으로 축전마크가 형성되어 있는 선전화에는

모범적인 단위들에 《선군봉화상》 쟁취를 위한 사회주의경쟁 공동순회우승기 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상과 영도업적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근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발휘하여 주제 98 (2009)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다음의 공장, 기업소들에 《선군봉화상》 쟁취를 위한 사회주의경쟁 공동순회우승기를 수여하기로 하였다.

청진시 수남구역 청남중학교, 선군건설합기기업소 (모체), 보산제철소, 제명평산, 은물평산, 문전강철공장, 수동발전소, 서두수발전소, 허천강발전소, 강계청년발전소, 북방화력발전련합기업소, 부전강발전소, 대동강발전소, 선산청년발전소, 부평발전소, 삼수발전소, 2. 8직통청년관람, 청성청년관람, 신장청년관람, 흑룡관람, 평대관람, 동창청년관람, 신리관람, 남덕관람, 개천관람, 삼신관람, 강동관람, 덕성관람, 인로관람, 남양관람, 통산관람, 명학관람, 풍곡관람, 원리관람, 화안관람, 개천관람, 개천관람, 통성메이링공장, 정주기관차대, 평안청년전기기관차대, 함흥역, 신의주청년과학화대, 신성현역,

배움의 나라를 활짝 펴게 철산군 철산소학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학생들이 가지고있는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체계적으로 키워내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철산소학교에서 학생들을 지극히 세차게 세차게 세차게 키워내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 있다.

학과학습에서나 체육경기에서 군적으로 1등.

지난해 도에서 진행된 축구경기에서도 1등.

이것은 최근에 학교가 거둔 자랑찬 성과의 일부이다.

사업에서의 성과를 기대하려 면 그 때 맞는 방법론이 있어야 한다.

나라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2학년부터 학생들을 예능소

합쳐가고있다

교수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본사기자 장정일씨를 학교에서

제 2차 4월의 봄 인민예술 축전 선전화들이 나왔다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선전화들이 출품되었다.

선전화들은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시이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천천만에 높이 받들어 모시며 민족최대의 명칭인 태양절을 위인칭송으로 성대히 기념하려는 천만 국민의 지향과 념원을 잘 보여주고있다.

선전화들에는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이라는 글발이 띄여져있으며 축전기간이 밝혀져있다.

주제조선의 밤하늘가에 떠저오르는 축로와 불보라를 배경으로 축전마크가 형성되어 있는 선전화에는

4월 중 지자기 현상

4월에 지구물리적으로 다음과 같다. 15일, 17일, 24일, 따라 건강에 불리한 날들은 1일, 4일, 6일, 12일, 28일, 30일. 본사기자

모범적인 단위들에 《선군봉화상》 쟁취를 위한 사회주의경쟁 공동순회우승기 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상과 영도업적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근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발휘하여 주제 98 (2009)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다음의 공장, 기업소들에 《선군봉화상》 쟁취를 위한 사회주의경쟁 공동순회우승기를 수여하기로 하였다.

청진시 수남구역 청남중학교, 선군건설합기기업소 (모체), 보산제철소, 제명평산, 은물평산, 문전강철공장, 수동발전소, 서두수발전소, 허천강발전소, 강계청년발전소, 북방화력발전련합기업소, 부전강발전소, 대동강발전소, 선산청년발전소, 부평발전소, 삼수발전소, 2. 8직통청년관람, 청성청년관람, 신장청년관람, 흑룡관람, 평대관람, 동창청년관람, 신리관람, 남덕관람, 개천관람, 삼신관람, 강동관람, 덕성관람, 인로관람, 남양관람, 통산관람, 명학관람, 풍곡관람, 원리관람, 화안관람, 개천관람, 개천관람, 통성메이링공장, 정주기관차대, 평안청년전기기관차대, 함흥역, 신의주청년과학화대, 신성현역,



# 고결한 덕망을 지니신 만민의 위대한 어머니

해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을 때면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20세기의 거룩한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그이에 대한 열렬한 칭송의 목소리를 터친다.

오늘 세계가 위대한 수령님을 그토록 못 잊어하며 높이 칭송하는것은 그이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뛰어난 명도력과 고매한 덕성, 넓은 도량과 뜨거운 인간애를 천품으로 지니신 주체의 영원한 태양, 만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시기때문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덕망에 있어서 우리 수령님과 대비할수 없는 위인은 력사에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따스로운 그 품을 못내 그리워하고있는 외국의 벗들속에는 유럽의 장가뜰로 엘리야 발로리도 있었다.

그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고 그의 숭고한 인덕에 탄복하게 된것은 35년전의 일 이 계기로 되었다.

1975년에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친선을 위한 유럽위원회가 결성된 기쁨을 안고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에는 수령님께서는 발로리가 유럽에서 대륙을 횡단해서 우리 나라에 찾아왔다는것을 아시고 그를 몸소 만나주시었다.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정력이 넘쳐 말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과도 같은 모습에 발로리는 자기의 은빛이 물러는것만 같은 심정에 사로잡혔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위해 오찬도 마련해주시면서 앞으로 꼭 어머니와 함께 다시 오라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자하신 모습과 뜨거운 은정은 그의 가슴속에 영원히 있을수 없게 소중한 자리잡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로리에게 들려주신 은정과 사랑은 이뿐이 아니다.

## 자주적발전을 위한 프랑수지식인연구협회 결성

자주적발전을 위한 프랑수지식인연구협회 결성식이 3월 24일 파리에서 진행되었다.

프랑수스 학계인사들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협회위원장으로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理事인 프랑수스 빠리제 5종합대학 명예교수 에드몽 주브가 선출되었다.

협회위원장은 결성식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오늘 인류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창다른 길을 찾으려면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정해하는 김정일명도자께서 발전봉부하시키는 주체사상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유럽의 자주화와 나아가서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프랑수스의 지식인들도 주체사상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광범한 사람들에

어느해인가 그가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대로 어머니와 함께 우리 나라를 방문한적이 있었다. 그때 그의 어머니는 평양에서 생활을 맞게 되었다. 발로리는 한평생 남편과 아들의 반포로 투쟁을 즐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한 어머니가 되국을 떠나 이국에서 생활을 맞게 되는데 대해 은근히 마음을 쓰게 되었다. 이러한 발로리의 속생각까지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에게 생활상을 보내주시었으며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어 생일날에는 몸소 그들의 속속에 찾아오시어 발로리의 어머니의 생활을 열렬히 축하해주고 그들모자가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할 귀중한 선물까지 안겨주시었다. 그날 발로리의 어머니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깊은 사랑에 목이 매어 오열을 터뜨리었다. 그들도 자가 받아들인 은정어린 선물에는 비단처럼도 지은 조선옷도 있었다. 발로리와 그의 어머니는 그 조선옷을 가문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고이 간직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영원히 가슴속 깊이 새겨두려는 마음을 굳히었다. 그들모자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다정한 육친적사랑은 진정 끝이 없었으며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도 발로리의 어머니가 조선을 다시 방문하도록 해주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의 어머니가 앓을 때에는 여러가지 귀중한 약품까지 보내주셨으며 발로리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몸소 가슴아파하시면서 그를 따듯이 위로해주었다.

하기에 발로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한없이 경모하는 자기의 순결한 사랑감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나는 1975년부터 오늘까지 김정일주석의 집집을 20여차례만 방문한 영광과 특권을 지닌 한 평범한 외국인이다. 그 감격스럽고 벅찬 나날들을 회고할 때마다 자애로운 주석각하의 다정하신 용성이 들리는것을 잊지 못하고 평범한 사람들에

우에 대한 여러가지 귀중한 약품까지 보내주셨으며 발로리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몸소 가슴아파하시면서 그를 따듯이 위로해주었다.

하기에 발로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한없이 경모하는 자기의 순결한 사랑감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나는 1975년부터 오늘까지 김정일주석의 집집을 20여차례만 방문한 영광과 특권을 지닌 한 평범한 외국인이다. 그 감격스럽고 벅찬 나날들을 회고할 때마다 자애로운 주석각하의 다정하신 용성이 들리는것을 잊지 못하고 평범한 사람들에

같이 인자하신 모습을 뵈는것만 같아 흘러내리는 눈물을 어쩔수 없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전에 늘 나를 만나주시고 태양같이 환한 웃음을 베풀어 주시면서 (아, 오빠 친구 발로리가 왔구나!) 하고 말씀하곤 하셨다. 그러면 나는 아이들처럼 한달음에 달려가 주석각하의 품에 막 안기곤 하였다. 온 세상을 안은듯싶은 그 행복한 순간들을 잊을수 없다.

...김일성주석의 인간사랑은 우주공간에 풀없이 비쳐가는 햇빛마냥 한계를 모르는 사랑, 시공간을 모르는 위대한 사랑이다. 진정 그이는 세계에서 다시는 찾아볼수 없는 유일한 인간사랑의 화신이었다.》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대비할수 없는 숭고한 덕망으로 만민을 메혹시키며 위대한 품에 안아주시는 절세의 위인, 인류의 태양이신 우리 수령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정을 받아안은 외국의 벗들에는 진 라틴아메리카자연맹 서기장이었던 헤나로 까르네로 제카도 있었다.

연대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한 배우 주체사상연구재단을 접견해주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카도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표단성원들에게 제카도의 부인의 인부를 물으신 다음 제카도의 생전에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다고 높이 평가해주셨었다. 그리고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제카도의 부인과 그 자녀들을 만나주신 일을 감회깊이 추억하시면서 배우에 돌아가면 그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줄것을 부탁하시었다.

제카도 말하면 평범한 기자로 활동하면서 진리와 정의를 찾아 고심하다가 위대한 주체사상을 받아들인 때로부터 자기의 참된 삶을 찾고 자주를 위한 길에서 생을 빛낸인 사람이였다. 그는 생전에 위대한 수령님을 여러차례 만나뵈셨고 수령님의 은혜로 사랑과 보살피심속에서 병치료까지 받았

었다. 그러한 그가 세상을 떠난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카도를 잊지 않으시고 그의 가족에게까지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었던것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제카와 가까이 지내며 있는 대표단성원들도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오랜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 그를 감감 잊고있었다. 하지만 자기들의 기억속에서조차 사라진 제카를 잊지 않으시고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우리 수령님의 고결한 의리와 고매한 인간애에 대표단성원들은 깊이 감동되어 머리를 숙여왔다. 이것은 비단 제카 한사람에게만 한한 일이 아니였다.

캄보자의 노동시사하누크대왕과 부인, 주체사상국제연수생 명예리사장 이노우에 슈하져, 장울화협사의 맡은 자인 장기와 그의 가족들 등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양과도 같은 어머니수령님의 따스로운 품에 안겨 뜨거운 사랑과 행복, 영광을 받아안았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넓은 도량, 고결한 도덕의리는 끝이 없고 한계를 넘었다.

연대인가 미국의 한 교수는 이런 말을 하였다.

—인류가 태양을 숭배하고 예수와 석가, 마호메트의 동정이 고마와 그들의 설교를 《오름의 가르침》, 《종교》라고 부르고 믿어온것은 사랑을 감당하였을 때문이다. 그런데 김일성주석께서 소신을 이루어주셨으니 그이를 믿는것은 인류의 영원한 신앙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품은 만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 따스로운 태양의 품이었다. 하기에 오늘 세상사람들은 인류공동의 평등한 태양같이 가까와올수록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위인칭송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신경섭

제카도 말하면 평범한 기자로 활동하면서 진리와 정의를 찾아 고심하다가 위대한 주체사상을 받아들인 때로부터 자기의 참된 삶을 찾고 자주를 위한 길에서 생을 빛낸인 사람이였다. 그는 생전에 위대한 수령님을 여러차례 만나뵈셨고 수령님의 은혜로 사랑과 보살피심속에서 병치료까지 받았

었다. 그러한 그가 세상을 떠난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카도를 잊지 않으시고 그의 가족에게까지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었던것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제카와 가까이 지내며 있는 대표단성원들도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오랜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 그를 감감 잊고있었다. 하지만 자기들의 기억속에서조차 사라진 제카를 잊지 않으시고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우리 수령님의 고결한 의리와 고매한 인간애에 대표단성원들은 깊이 감동되어 머리를 숙여왔다. 이것은 비단 제카 한사람에게만 한한 일이 아니였다.

캄보자의 노동시사하누크대왕과 부인, 주체사상국제연수생 명예리사장 이노우에 슈하져, 장울화협사의 맡은 자인 장기와 그의 가족들 등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양과도 같은 어머니수령님의 따스로운 품에 안겨 뜨거운 사랑과 행복, 영광을 받아안았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넓은 도량, 고결한 도덕의리는 끝이 없고 한계를 넘었다.

연대인가 미국의 한 교수는 이런 말을 하였다.

—인류가 태양을 숭배하고 예수와 석가, 마호메트의 동정이 고마와 그들의 설교를 《오름의 가르침》, 《종교》라고 부르고 믿어온것은 사랑을 감당하였을 때문이다. 그런데 김일성주석께서 소신을 이루어주셨으니 그이를 믿는것은 인류의 영원한 신앙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품은 만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 따스로운 태양의 품이었다. 하기에 오늘 세상사람들은 인류공동의 평등한 태양같이 가까와올수록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위인칭송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신경섭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20세기의 거룩한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그이에 대한 열렬한 칭송의 목소리를 터친다.

오늘 세계가 위대한 수령님을 그토록 못 잊어하며 높이 칭송하는것은 그이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뛰어난 명도력과 고매한 덕성, 넓은 도량과 뜨거운 인간애를 천품으로 지니신 주체의 영원한 태양, 만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시기때문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덕망에 있어서 우리 수령님과 대비할수 없는 위인은 력사에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따스로운 그 품을 못내 그리워하고있는 외국의 벗들속에는 유럽의 장가뜰로 엘리야 발로리도 있었다.

그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고 그의 숭고한 인덕에 탄복하게 된것은 35년전의 일 이 계기로 되었다.

1975년에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친선을 위한 유럽위원회가 결성된 기쁨을 안고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에는 수령님께서는 발로리가 유럽에서 대륙을 횡단해서 우리 나라에 찾아왔다는것을 아시고 그를 몸소 만나주시었다.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정력이 넘쳐 말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과도 같은 모습에 발로리는 자기의 은빛이 물러는것만 같은 심정에 사로잡혔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위해 오찬도 마련해주시면서 앞으로 꼭 어머니와 함께 다시 오라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자하신 모습과 뜨거운 은정은 그의 가슴속에 영원히 있을수 없게 소중한 자리잡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로리에게 들려주신 은정과 사랑은 이뿐이 아니다.

## 미제의 세균전만행을 폭로

파키스탄신문 《더 네이슨》 3월 19일부 《더러운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조선전쟁기 미제가 저지른 세균전만행을 폭로하는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1952년 피해지역들을 현지조사한 국제과학조사단에 의하여 미제가 조선에서 강행한 세균전의 진모가 드러난데 대하여, 그러나 이러한 끔찍한 과학적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직까지 이 사실을 부정하고 은폐하기 위해 책동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신문은 조선전쟁시기 미제가 세균무기개발에 일찌미 일찌미 손을 대고있던 사실과 미제군인들이 미군병원에서 미군병사들을 치료하는데 미제가 사용하였던 미생물을 하달한 사실, 세균전에 참가하였다가 포로되어 사건의 진상을 토설한 미군비행사가 귀환후 그 진술을 취소하도록 강요받은 사실 등 객관적자료들을 들어 미제가 강한 사람들이라는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나라에서 에네르기문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년간 혈혼 발전소들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발전소들을 건설하며 자원을 절약하고 출세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 관심을 돌려 먹은대로 꾸러갈수 있는 정신

# 사회주의교육제도에 대한 칭송

백두산위인들의 따스로운 손길아래 누구나 배움의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며 행복하게 사는 내 조국,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교육제도가 펼쳐진 우리 나라를 국제사회계는 경탄의 눈길로 바라보고있다.

네팔신문 《아르판》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은 《교육의 나라》로 널리 알려져있다. 조선에서는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해당하는 교육제도에 망라되어있으며 그 모든 교육이 무료인것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보다 큰 주목을 끌고있다.

조선은 이미 1980년대에 모든 성인들이 중학교졸업이상의 수준에 도달했으며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 인구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있다.

1998년 8월에 쓰야올린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1호》에 이어 2009년 4월에 발사된 《광명성 2호》 역시 100% 조선의 과학자들에 의하여 개발되었다는 사실은 조선의 교육이 얼마나 큰 은을 나라내고있는가를 보여주고있다.

라오신문 《싸스온》은 조선에는 세 세대에 대한 완전한 정규교육제도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가 세워져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에서는 교육사업이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40여년에 걸친 일제식민지 통치기간에 조선의 교육받은 지위를 완전히 박탈당하였다. 이어 그들에게는 자기 민족으로 길러는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한후 후속근거지들에서 무료교육을 비롯한 제반 인민적시책을 실시하시였다.

이것이 오늘 조선교육의 역사적 뿌리로, 빛나는 전통으로 고장조하였다.

교육사업에서의 모든 성과는

조선에서는 교육사업이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40여년에 걸친 일제식민지 통치기간에 조선의 교육받은 지위를 완전히 박탈당하였다. 이어 그들에게는 자기 민족으로 길러는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한후 후속근거지들에서 무료교육을 비롯한 제반 인민적시책을 실시하시였다.

이것이 오늘 조선교육의 역사적 뿌리로, 빛나는 전통으로 고장조하였다.

교육사업에서의 모든 성과는

##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행동 규탄

팔레스타인민족당국 수반 마흐무드 아바스 3월 27일 제2차 아랍국가연맹 수뇌자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확장행동을 규탄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당국이 《정착촌》 확장행동에 집요하게 매여

팔레스타인민족당국 수반 마흐무드 아바스 3월 27일 제2차 아랍국가연맹 수뇌자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확장행동을 규탄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당국이 《정착촌》 확장행동에 집요하게 매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일성동지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그이에 대한 열렬한 칭송의 목소리를 터친다.

오늘 세계가 위대한 수령님을 그토록 못 잊어하며 높이 칭송하는것은 그이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뛰어난 명도력과 고매한 덕성, 넓은 도량과 뜨거운 인간애를 천품으로 지니신 주체의 영원한 태양, 만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시기때문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덕망에 있어서 우리 수령님과 대비할수 없는 위인은 력사에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따스로운 그 품을 못내 그리워하고있는 외국의 벗들속에는 유럽의 장가뜰로 엘리야 발로리도 있었다.

그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고 그의 숭고한 인덕에 탄복하게 된것은 35년전의 일 이 계기로 되었다.

1975년에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친선을 위한 유럽위원회가 결성된 기쁨을 안고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에는 수령님께서는 발로리가 유럽에서 대륙을 횡단해서 우리 나라에 찾아왔다는것을 아시고 그를 몸소 만나주시었다.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정력이 넘쳐 말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과도 같은 모습에 발로리는 자기의 은빛이 물러는것만 같은 심정에 사로잡혔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위해 오찬도 마련해주시면서 앞으로 꼭 어머니와 함께 다시 오라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자하신 모습과 뜨거운 은정은 그의 가슴속에 영원히 있을수 없게 소중한 자리잡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로리에게 들려주신 은정과 사랑은 이뿐이 아니다.

## 일본에서 인권침해행위 성행

일본에서 인권침해행위 성행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3월 26일 일본법무성이

일본에서 인권침해행위 성행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3월 26일 일본법무성이

## 이스라엘군의 폭압 만행

이스라엘군이 가자지대와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 팔레스타인민들에 대한 폭압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3월 25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대에서 무고한 주민들에게 사격을 가하여 2명에가 부상을 입혔다. 같은 날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서안지역의 헤브론시와 난부루스시에 쳐들어가 6명의 팔레스타인민들을 체포해가는데 사동을 벌렸다.

이예 앞서 3월 24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대의 베이트 라

## 항의 시위와 집회

—보르두갈의 리스봉에서 3월 26일 처지개선을 위한 청년들의 대중적인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약 5000명의 청년들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국회청사앞까지 행진해가면서 자기들에게 안장된 일차리를 보강하고 로동조건을 개선하며 임금을 올려줄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아르카나스만의 콘두즈에서 3월 28일 나토군의 살인만행을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최근 나토군의 공습으로 6명의 민간인이 또 살해된것과 관련하여 일어난 시위에는 수백명의 아르카나스만인들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나토군의 계속되는 민간인살인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번 공습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수리야의 수도에서 3월 26일 반이스라엘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수만명의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거리를 따라

## 독아나는 나토군

아프카니스탄주둔 나토군이 나라의 행정세력의 공격적전에 의해 계속 독아나고있다.

3월 24일 칸다하르주에서 항쟁세력의 도로폭탄공격으로 5명의 나토군병사가 죽었다 한다.

산림 시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산림림벌과 생태환경과 파괴 등으로 산림은 실질상이 무시해져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있다.

얼마전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조사 자료를 발표하여 2000년 이래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해마다 평균 520만ha의 산림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 조선중앙통신

미군후방마비행장이설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이 끌어머리를 앓고있다.

이 문제를 놓고 정부내에서는 물론 여야당사이에도 심각한 논의들이 벌어지고있다. 미군후방마비행장이설대체를 빨리 확정짓지않을 경우유하는 미국의 압력이 대단히 많은데다가 오기나와현 주민들의 강한 혐의이설유고와 정부와 여당내에서의 의견충돌이로 일본당국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일본방위상은 미군후방마비행장이설문제와 관련하여 받아들여겠다는 현은 없다고 한숨을 지냈다. 수상 오기나와는 미군후방마비행장을 오기나와현밖으로 이설하자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현내주민들의 심정을 고려할것이라고 하고있다. 이에 대해 오기나와현 지사는 정부가 검토하고있는 미군후방마비행장이설안을 받아들이는게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 완강히 거부하여나서고있다. 그는 현내주민들의 요구를 무작정 꺾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미군후방마비행장이설 문제는 2006년에 일미가 합의한 내용이다. 그에 의하면 미군후방마비행장을 오기나와에서 인구밀도가 덜한 지역으로 옮기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젠 주민당국은 비행장대체지를 확정짓지 못하고 물러나고말았다. 지난해 일본에서 민주당정권이 출현한후 그에 대한 논의가 더욱 분분해지면서 지금까지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중요하게는 현지주민들의 완강한 반대가 크게 작용하고있다.

오기나와현 주민들의 반미감정은 대단히 높다.

미국은 오래동안 오기나와에 미군을 주둔시켜왔고 오기나에서 이곳을

## 에네르기분야에서 자립을 이룩할것을 호소

베라루씨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가 최근 한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앞으로 5년내에 에네르기분야에서 자립을 이룩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베라루씨인들은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나라에 자신들이 생활을 마음먹은대로 꾸러갈수 있는 정신

## 여러 나라들 협조

중국과 베루가 3월 26일 쌍월 21일 로씨야와 수리아는 두 무자무위협정을 이행해가기 위하여 3년 문화협조계획에 조인하였다.

## 정치난쟁이의 고충과 야심

거대한 해외침략군사기지로 전변시켰다.

오기나와현 뒤덮은 미군사기지들이는 수많은 무기들과 비행기, 함선들, 각종 전락물자들이 짙 들어차있다. 이곳 주민들은 미군사기지들로 하여 숨막히는 생활을 하다가싶이 하고있다. 그런것만큼 일본정부는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일본정부가 미군후방마비행장이설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있는것은 지금까지 존재하여온 미군과국의 수직관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켰다고 한 선지공약과도 관련된다.

일본은 력대적으로 대미추종, 대미굴종정책을 실시하여왔다. 미국의 판계를 우선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전 민족대의정책을 조정해나간것이 일본외교의 핵심이었다. 미국상선의 말이란면 귀구멍에라도 들어가야 한다. 일본정부는 오기나와현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할수 없는 형편에 있다. 그들의 요구이자 일본의 민심이라고 할수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에 있는 총선거에서 자민당을 제패시키고 정권을 잡을수 있었던것은 민심의 기대가 있었기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 민주당정권으로서 미국의 독촉을 받는다고 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등을 돌려라고 무려 그에 대한 논의가 더욱 분분해지면서 지금까지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중요하게는 현지주민들의 완강한 반대가 크게 작용하고있다.

오기나와현 주민들의 반미감정은 대단히 높다.

미국은 오래동안 오기나와에 미군을 주둔시켜왔고 오기나에서 이곳을

리로 되고있다. 일본정부가 오기나와현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미군후방마비행장이설대체를 오기나와현내에 선정하였는것은 저들의 정치적용맹 스스로 칼을 막는것이나 다름없다. 그런것만큼 일본정부는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일본정부가 미군후방마비행장이설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있는것은 지금까지 존재하여온 미군과국의 수직관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켰다고 한 선지공약과도 관련된다.

일본은 력대적으로 대미추종, 대미굴종정책을 실시하여왔다. 미국의 판계를 우선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전 민족대의정책을 조정해나간것이 일본외교의 핵심이었다. 미국상선의 말이란면 귀구멍에라도 들어가야 한다. 일본정부는 오기나와현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할수 없는 형편에 있다. 그들의 요구이자 일본의 민심이라고 할수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에 있는 총선거에서 자민당을 제패시키고 정권을 잡을수 있었던것은 민심의 기대가 있었기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 민주당정권으로서 미국의 독촉을 받는다고 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등을 돌려라고 무려 그에 대한 논의가 더욱 분분해지면서 지금까지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중요하게는 현지주민들의 완강한 반대가 크게 작용하고있다.

오기나와현 주민들의 반미감정은 대단히 높다.

미국은 오래동안 오기나와에 미군을 주둔시켜왔고 오기나에서 이곳을

자적인 군사행동을 실현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것이다.

지난 세기 말엽과 세 세기초에 일본은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제정을 비롯한 각종 전쟁법들을 조차하여 해외진출의 길을 열어놓았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승인과 비호를 받은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이 해외군사작전법위를 지나치게 넓혀나가는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있다. 저들의 군사작전수행에 역작용을 할수 있기때문이다. 말하자면 미국은 저자들의 동행이 일본이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고있다.

일본은 핵무장화를 놓고보아도 그렇다.

일본은 핵력강들의 대렬에 들어설것을 꿈꾸고있다. 여기에 제동을 거는것은 역시 미국이다.

지금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안에 들어가있다. 미국은 《핵우산》제공으로 일본의 핵무장화를 《통제》하고있다. 일본이 이전에는 미국의 《핵우산》이 절실히 필요하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사정이 달라지고있다. 일본은 핵무기생산과 관련한 물질기술적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어놓았다. 미국의 군사적통제는 핵무장화야망에 틀어막는 일본에 있어서 장애물로 되고있다. 일본정부는 미군후방마비행장이설문제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 미국의 칼에서 벗어나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미군후방마비행장이설대체지선정과 관련한 일본정부의 태도는 아시아나 라의 민심을 사고 이 지역에 깊숙이 침투하려는 속심과도 중요하게 판

연된다.

일본은 아시아나라들로부터 패배와 조소를 받고있다. 일본은 일제패망후반세가가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외로운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있다. 극악한 살인범죄, 일본군 《위안부》, 국악, 문화제략탈 등 과거 일제가 저지른 침략범죄들은 인류력사에 전무후무한 것이다. 일본은 과거죄행을 인정도 배상도 하지 않으므로써 아시아인민들의 저주와 증오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시대는 달라졌다. 오늘 아시아는 세계경제발전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다. 일본이 아무런 콘소르를 치며 이 시대도 아시아나라들을 등지고는 살아가수 없게 되였다. 일본은 아시아나라들을 배척하던 중앙에는 고립당할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조건에서 일본은 미국과 일정한 거래를 두는 자세를 취하는것으로 아시아나라들에 더욱더 접근하는 기회를 마련하려 하고있다. 일본이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서 미국을 배제하려는 태도를 보인것과 그와 관련된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미군후방마비행장이설대체지선정문제를 놓고 시간을 끌지만 중앙에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것으로 정세분석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배척당하면 대외적으로 더욱 나치런 림장에 빠질수 있기때문이다. 아무튼 일본당국은 민심의 흐름과 미국의 요구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것이다. 망자들 다같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는 자명하다.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미군후방마비행장이설대체지선정과 관련한 일본의 고충이 더욱 커질수밖에 없다.

백 문 규